

도전과 희망으로 여는 경진년



오후 □ 오전

TV프로그램

프로문의: KBS포항방송국 280-7100 포항MBC 289-0346 TBC 053-760-2200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TV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and channels: KBS1, KBS2, MBC, TBC, EBS. Includes program names like '밀레니엄특집' and '세천년 기획'.

thruNet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247-2301 080-008-0009

경북케이블TV방송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251-7777 251-3326

간판 (Signage)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TEL : 282-5984

10년전과 판판된 동네

새주말극장 '왕룡의 대지' <TBC 오후 8시50분> 브라질에서 귀국한 미애와 딸 송이, 10년전 모습과 판이하게 달라진 동네가 낯설기만 하다.



미애를 짝사랑했던 형수는 미애의 출현으로 가슴이 설레고, 왕룡은 미애가 돌아와 기쁘지만, 남편을 자동차 사고로 2년전에 보냈다고 해 냉담을 보인다.

여기에 속임수 석구와 석구처는 끊임없이 왕룡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내려 하지만, 여의치가 않다. 한편 봉필은 이복형인 민호와는 상반되게, 학원에서 사고를 쳐 학원에도 못 나가게 되고 급기야 독서실에서 주먹질을 하여 경찰서로 불려가게 된다.

왕룡은 아들 석구가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찾아 썼다는 것을 알고 경악하는데...

특별 생방송 '비전2000' 밀레니엄 특별생방송 비전 2000(6) <TBC 오전 9시> 네티즌이 선정한 21세기 미래에 특을 공개한다. 전출연자가 새천년 메시지를 들려준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로 가 본다. <미래의 생활상>은 21세기는 인터넷 결혼시대, 우주로 신혼여행을 간다. <영화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60년대 이후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을 확인

21C 디지털 기술혁명

'새천년 새선택' <MBC 밤 10시> <제1부 디지털 혁명> 100여년전 산업혁명이 석탄과 철, 증기기관을 매개로 대량생산 시대를 연 제조업의 혁명이었다면 20세기말 시작된 디지털혁명은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정보 혁명이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생활 여러 면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음성으로 켜고 끌수 있는 각종 가전제품, 또 주머니 속에도 넣어 갈 만큼 작고 가벼우면서도 성능은 더욱 강력해진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게 될 것이다.

도우 김용옥과 함께 진행

이소라의 프로젝트 <KBS2 밤 11시30분> <1> 공개토대왕 정복루트를 가다- 염수의 비밀 새천년 왜 우리는 고구려를 말하



도우 김용옥이 이소라와 더불어 MC로 진행한다. 첫 번째 손님인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을 지닌 가수, 김현철씨와 사랑에 대해 얘기 해 보고 젊은이들의 앞으로의 방

향을 알려준다. 평소 김용옥 선생님을 존경해오던 조영남씨가 여러가지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다들세기 꿈과 희망 그려

밀레니엄 특집드라마 '세상의 아침' <KBS1 오전 10시10분> 21세기는 너무나 다양한 인간행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21세기 인간관계의 축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나의 21세기는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한 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과연 변화란 무슨 의미일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형태의 꿈과 좌절, 재기를 통해, 변화 속에 있는 '우리의 21세기의 꿈과 희망'을 그려본다.

공개토대왕 정복루트

'역사스페셜' <KBS1 오후 8시> <1> 공개토대왕 정복루트를 가다- 염수의 비밀 새천년 왜 우리는 고구려를 말하는가? 고구려는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 드물게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었다. 거대한 한족이 있었고, 북방유목민이 있었고, 서역인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민족은 고구려라는 영광토에 녹아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와 함께 호흡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고구려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아시아 최강의 고구려를 건설했던 공개토대왕(2부작)과 요즘 새롭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주목 받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의 웅혼한 기상을 만난다.

새천년 첫 연휴 지역극장가



이길까. 신정연휴 지역극장가에는 맑은 영혼의 사랑을 주제로 한 2편의 영화와 공포·액션물 3편이 개봉, 신정 특수전쟁이 돌입한다.

회제작 '박하사랑' 0시 첫 개봉 신정 특선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1월 0시 첫개봉, 화제가 되고 있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랑' (포항 시민극장). 알싸한 박하향이 풍기는 영화로 새천년을 맞

은 관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1900년대의 시간으로 안내한다. 주인공 김영호란 순수한 영혼을 지닌 청년 남자를 따라 그의 삶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여행을 하다가보면 광주의 5월이라는 현대사를 맛따르게 된다.

연쇄살인 다룬 스릴러물 '본 콜렉터' 필립 노이스 감독의 '본 콜렉터' (포항 아카데미극장, 경주 명보극장)는 연쇄살인을 다룬 스릴

러를 만끽하게 하는 영화. 맨질 워싱턴,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이 영화는 비수한 소재의 기존 영화와는 색다른 이야기로 전개된다. 연쇄살인을 다루는 스릴러에서 경찰은 집요하게 추격하지만 범인에게 번번이 농락만 당한다.

19번째 시리즈 '007 언리미티드' 마이클 웨이드 감독, 피어스 브로스넬, 소피 마르소 주연의 007시리즈 19번째 영화. '007 언리미티드' (포항 중앙극장)도 그동안 개

붕이 기다려졌던 화제작이다. 여기서도 007은 여전히 내 이름은 본드, 제임스 본드라며 여자를 휘둘러.

국왕의 사랑과 갈등 '애나 앤드 킹' 포항극장에서 개봉하는 '애나 앤드 킹'은 전세계가 변혁의 물결속에 휩쓸린 60년대 동남아시아의 시대적 고민을 그대로 안고 있는 태극을 무대로 영국의 젊은 미망인 애나 레노웬스와 국왕간의 사랑과 갈등을 그린 영화다. [김미선기자]

Book advertisement for '겨울의 집' by Lee Dae-hwan. Includes author photo,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얼어터진 상처에서 피어난 들꽃 같은 가족사랑!' '20세기 한국사 - 그 춥고 쓰라린 겨울의 시대 포항시 대잠동 외딴집 삼대의 눈물과 사랑'